

6 뉴스

법전원 '기준 미달'? 평가 기준은 '의문'

박희원 기자 rxtxfjxy@khu.ac.kr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운영 실태 점검에서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이 '한시적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2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평가위)에서 공표한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우리학교와 서강대학교, 인하대학교 총 3개교가 '한시적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또한 평가위는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총 13개교에 '조건부 인증' 판정을 하며 법전원 25곳 중 16곳이 기준미달로 평가됐다. 이 같은 결과는 운영 실태

점검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평가는 3주기 평가로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5년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 영역은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로 5개 영역을 모두 만족시켰을 때 '인증', 1개 영역 미충족 시 '조건부 인증', 2개 영역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시적 불인증'으로 판정받는다. 우리학교는 교원, 교육성과 2개 영역에서 부적합 판정과 학생 영역에서 감점을 받아 '한시적 불인증'으로 판정됐다.

우리 학교는 교원 영역에서

▲2021학년도 2학기에 지도교수 1인당 지도 학생이 16인을 초과한 교수가 1인이고, 15인을 지도한 교수가 다수인 점 ▲평가기간 중 전임교원 21인 중 2인의 연구 실적이 200% 미만인 점 ▲1개의 교과목 강의적 합성이 150점 미만인 점들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교육성과 영역에서 ▲평가기간 중 기부금 및 전임금 수입 비율이 1.9%~2.6% 사이로 평가 기준인 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점 ▲연구프로젝트 연구비 총액이 542만 원으로 평가 기준인 7천만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점 ▲담당 교원의 부재로 민사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원인이 돼 부적합을 판정받았다. 학생 평가영역에서는 ▲지원자의 신상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201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교육부 경고를 받은 바 있어 1점 감점으로 부적합 판정은 피했다.

이에 평가위 '인증' 판정이 아닌 대학들에 한해 지난 1월 6일까지 추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모의재판 실시 여부나 기부금 수입 비율 등의 부적합 처리된 항목들에 대해 반박 자료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평가위로부터 '모든 대학에 대해 기존 결정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전원 폐지나 변경 등과 같은 설치인가 제재는 교육부의 권한이므로 평가위의 이번 결과로 학사 운영에 대한 제한이나 재정적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판정 결과로 인한 이미지 하락은 법전원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법전원은 교육부에 평가위의 판정 결과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서를 준비 중으로,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인증 판정 낙인 제거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3주기 평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존 평가 방식과 큰 변동 사항이 없음에도 부실 운영 판정 학교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 2주기 평가에서 각각 18개교와 23개교가 '인증' 판정을 받았으나, 3주기 평가에서는 '인증'을 받은 곳은 9개교에 그쳤다.

우리학교 법전원 박정훈 원장은 "평가위의 이번 통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평가 기준과 판단과정의 투명성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원장은 "2027년 4주기 평가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해 3월 1일까지 이번 평가에 감점 요소였던 교원 연구 업적 부분은 미리 완성해 둘 것"이고 "본 평가 전 교내 자체 평가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설국버스 배차시간 변경

김미르 기자 atelierx@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개강을 앞두고, 양 캠퍼스(양캠)를 오가는 셔틀버스 '설국버스' 배차 시간이 변경됐다. 지난 2월 발표된 시간표를 두고 ▲수업 시간표와 맞지 않는 배차 기준 ▲기준 대비 줄어든 운행횟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발표된 2023학년도 1학기 설국버스 시간표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서울캠) 행 설국버스는 사색의광장에서 ▲7:20 ▲11:50 ▲14:00 ▲16:30에 출발, 국제캠퍼스(국제캠) 행 설국버스는 온실 앞에서 ▲7:20 ▲11:50 ▲14:00 ▲16:30에 출발했다. 각 캠퍼스에서 하루 4회 동시에 출발하는 방식으로, 지난학기 운행 횟수에 비해 양캠 모두 1회씩 감축된 것이다.

반면 우리학교 수업 시간표는 ▲09:00~10:15 ▲10:30~11:45 ▲12:00~13:15 ▲13:30~14:45 ▲15:00~16:15 ▲16:30~17:45으로 편성돼 있다. 캠퍼스 간 이동시간(약 1시간 반)과 하차 위치에서 강의실까지 이동시간(약 15분)을 고려해 두 시간표를 비교하면, ▲11:50 ▲14:00의 버스 이용률은 타 시간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국버스 배차시간이 변경됐다.

(사진=김미르 기자)

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월 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실시한 '2023학년도 1학기 설국버스 설문조사'에서도 ▲18:00 ▲10:00 ▲13:30 순으로 증차 요청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1:50의 시간 조정 요청이 뒤를 이었다. 국제캠 총학은 "조사 결과, (학생들은) 전체적인 노선 증설과 하교를 위한 18시 버스를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며 "특정 시간에 편재돼 있고, 수업 시간을 고려해 탑승하기 애매한 시간표가 변경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지리학을 다전공하는 김동기(한국어학 2019) 씨 역시 "설국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며 "국제캠에서 서울캠까지 도로가 정체될 경우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도 소요되며 11시 50분 출발하는 설국

버스를 이용할 경우, 도로 정체가 심한 날에 어쩔 수 없이 13시 30분 수업에 지각할 수밖에 없다"고 배차 시간 개선을 호소했다.

이에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배차 시간이 수업 시간표를 온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 2월 28일 수정된 시간표에 따르면, 서울캠 행 설국버스는 사색의광장에서 ▲7:20 ▲10:00 ▲13:30 ▲16:40에 출발, 국제캠 행 설국버스는 온실 앞에서 ▲7:20 ▲10:00 ▲13:30 ▲16:40에 출발한다. 캠퍼스 간 교차 수감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 예상했던 ▲11:50 ▲14:00는 학생들이 요청한 ▲10:00 ▲13:30으로 변동됐다. 그러나 요청이 가장 많았던 ▲18:00는 증설되지 않았고, 캠퍼스별 하루 4회 운행은 유지됐다.

설국버스 증차에 대해 총무팀은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총무팀은 "자체 버스 운행이 불가능해 업체에 맡겨야 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 운행 횟수를 늘릴 수는 없다"며 "이번 학기는 실제 탑승 인원이 평균 20명에 달하는 시간대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시 출발의 경우, (학생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용자가 가장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해당 시간대는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학기부터 설국버스 운영업체가 변경되면서 페이코 결제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총무팀은 "(페이코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 결제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무임승차 방지 및 정확한 탑승 인원 파악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과 편입경쟁률 197대 1

곽다운 기자 kkyu1109@khu.ac.kr

2023학년도 편입학 합격자가 발표됐다.

입학처에 따르면, 편입학 모집은 386명 모집에 8,736명이 지원해 경쟁률 22.6대 1에 달했다. 일반편입학은 서울캠퍼스(서울캠) 20.5대 1, 국제캠퍼스(국제캠) 2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인원이 더 적은 학사편입학은 서울캠 23.5대 1, 국제캠 16.2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캠 의학 계열이다. 학사편입학에서 올해 처음 모집하는 한의학과(인문)의 경쟁률은 197대 1에 달했다. 일반편입학에서는 의학과 183대 1, 치의학과 10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제캠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건축학과다. 일반편입학 전형으로 2명을 모집하는 건축학과에 88명이 지원하면서 44대 1의 경쟁률을 올렸다. 지난해 21.3대 1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40.5대 1, 한국어학과가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학처는 "수시나 정시와 달리 지원 횟수가 안 정해져 있다"며 편입학 지원자 증가에 대해 설명했다.